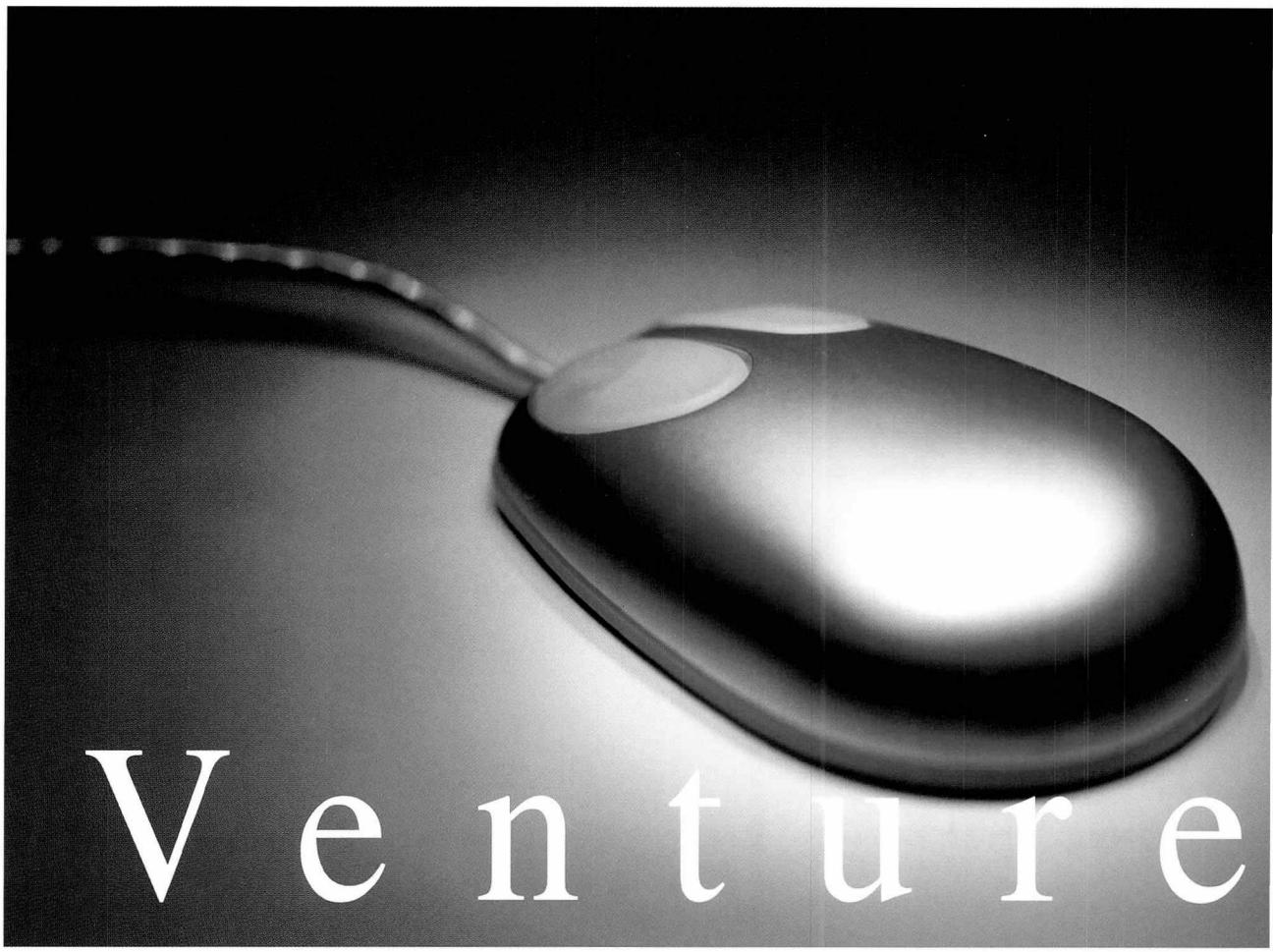
Venture의 옥석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MF와 벤처 : 짧은 시간 큰 교훈

IMF 구제금융을 받고, 극복하였던 지난 5년은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시간이었다. 거대한 산불처럼 기존의 것을 싹쓸이 해 버리고 새로운 법칙에 맞는 건강한 새싹을 틔웠다. 특히 경제 쪽은 완전히 바뀌었다.

금융, 기업경영, 특히 벤처부문의 변화가 컸다. 국내에 벤처기업이 선을 보인 것은 오래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벤처가 보편화 된 것은 IMF 이후라고 할 수 있다. IMF로 좌절에 빠져있던 시대에 벤처는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었고, 우리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주었다. 이런 의도는 초기에 어느 정도 적중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IMF 때문에 급증한 국내 실업자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당시의 침체된 국내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아가 수출증가율에도 크게 공헌하여 귀한 달러를 국내에 들여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벤처에 대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국내에 이런 도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부작용도 컸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희망을 바라던 국민성원이 합쳐져 '벤처 붐' 이 일었다. 게다가 세계적인 IT산업에 대한 환상은 이를 부채질하여 벤처에 대한 거품현상이 나타났다. '닷컴 기업' 이라면 앞다투어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 가 성행했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인 코스닥이 투기장소로 인식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과열현상은 세계적으로 IT 산업정체 현상과 함께 진정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끝없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국내 벤처에 대해 또 한번의 왜곡현상이 나타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알짜 벤처까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국내의 벤처 환경도 동조현상을 보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경기 급랭으로 벤처 자금조달 시장인 코스닥이 폭락하였다.

2000년 4월을 기점으로 투자된 많은 자본들이 회수되기 시작하였으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새롭게 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국내 벤처기업이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였고, 2002년 초에는 국내 벤처기업을 대표하던 메디슨이 최종부도가 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되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코스닥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벤처 투자자금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방어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2002년 중소기업청의 벤처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0년과 2001년 사이 벤처기업들의 부채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건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부채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 상환 압박 때문에 벤처의 고유 특성인 '모험' 에 현실적 제약이 커지게 되며,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벤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지금 국내 벤처기업들은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다.

한편, 그 동안 확보해 두었던 핵심인력들도 불안한 심정에 대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벤처 업계 전체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신호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밴처가 최악의 상황이 더 진전되기 전에 국가와 벤처기업들은 합심하여 국내 벤처업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우량 벤처기업도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빠져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지 않으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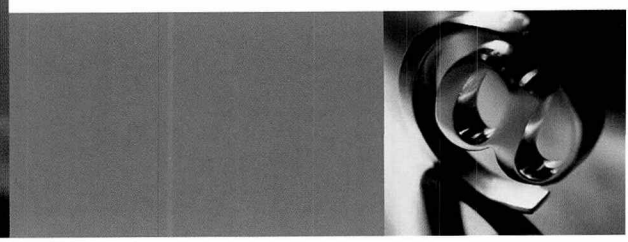
벤처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장상황을 바꿀 수 없다. 벤처는 희망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첫 계단이다. HP, 시스코, MS 등 최근의 벤처 뿐만이 아니라 GE도 SONY도 모두 벤처였다. 벤처정신이 없으면 우리의 장래도 없다. 어렵게 붙은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벤처를 다시 보자 : 벤처의 진정한 가치

최초의 벤처기업은 미국의 휴렛팩커드(HP)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중심의 경제관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이미 오래 전부터 벤처는 존재하였다.

콜럼부스 일행의 신대륙 탐험도 벤처기업과 같은 것이었다. 성공하면 부와 명예를 얻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우리 민족은 체질적으로 벤처정신과 궁합이 잘 맞는다.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아는 민족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집중하여 불가능한 것이라 평가되던 것들을 실현하는 저력 등 모든 것들이 벤처정신 그 자체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기업의 공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은 '모험' 그 자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벤처기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미국의 급속한 발전의 근간은 벤처기업 때문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성공에 따른 막대한 포상이 주어지는 벤처의 특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 기업들은 자본력과 영향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벤처기업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필요도 없었다. 심한 경우, 자신의 회사가 벤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업가도 있었고 벤처기업도 아닌데 벤처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

벤처란 앞서 말한 것 같이 한마디로 'High risk high retur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벤처기업의 정의로 확대해 보면, '보통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란 성공하면 순식간에 시장상황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과거가 주는 교훈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IT 경기가 급랭하는 바람에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벤처의 거품이 적당하게 터져 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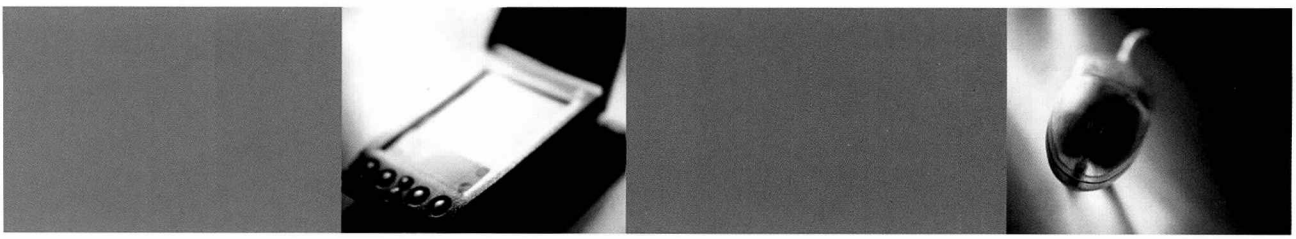
비록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시련은 훗날 좋은 약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힘든 상황을 '땅 다지기'로 인식하여야 한다.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과거에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첫째, 기업경영과 경제운용의 세계에서 시장의 논리가 배제되면 그 부작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벤처도 기업이다. 뚜렷한 비전과 함께 수익을 남겨야 한다. 혹은 조만간에 수익을 남길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사업전개, 경영활동 등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전개될 수 있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시장의 논리가 무시되고 막연한 미래의 장미빛 환상을 믿고 밀어붙이다가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다.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벤처 육성을 위해 시행하였던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오히려 벤처기업의 버릇(?)을 나쁘게 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진정한 벤처를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지난 2002년 11월에 강화된 벤처인증제도를 강화하여 이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이비 벤처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의 효과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2005년을 시점으로 벤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긴다고 하니 그때가 되면 국내 벤처업계도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주체들이 본질을 망각한 경우가 많았다. 너무 쉬운 길만 찾았다.

핵심 기술(역량)을 개발하여 체질을 강화하기보다는 순간의 '단 맛'만을 찾았다. 쉽게 모은 자금을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로 줘 버리든지, 혹은 로비자금으로 쓰던지, 아니면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는 아예 금융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이는 엄청난 왜곡이며 투자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벤처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서 본질을 망각하면 더 이상 벤처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벤처정신의 확산이 필요한 때

최근 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정부와 벤처업계 등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국내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국내 몇몇 벤처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요즘과 같이 국경의 벽이 없어지면서 세계 전체적의 경쟁체제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벤처'라고도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벤처정신'이다.

지난 수년간의 우리 경험과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벤처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국내 벤처의 싹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실과 몇몇 성공신화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가능성이 '벤처정신'으로 승화되어 국내기업의 문화로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체질적으로 벤처정신과 궁합이 잘 맞는다.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아는 민족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집중하여 불가능한 것이라 평가되던 것들을 실현하는 저력 등 모든 것들이 벤처정신 그 자체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기업의 공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시장에서 단 시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다.

우리의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은 이런 벤처정신으로 이루어 낸 것을 상기하자.